

대덕특구, 하이테크엑스포 성과 1500만달러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원본부는 특구 소재 벤처기업들이 11월 16-21일 중국 선전에서 열린 하이테크엑스포를 통해 1500만달러 이상의 계약을 체결하고 현지 유통판매를 위한 MOU 3건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태양에너지를 활용해 휴대전화를 충전하는 제품을 전시한 엘에스텍은 150만달러의 납품 주문과 현지 3개 대리점 유통계약 체결을 성공해 연간 200만달러 이상 판매할 수 있는 중국시장 교두보를 마련했다.

또 광촉매를 활용한 필터장비를 생산하는 나노케미칼은 1000달러의 납품계약을 체결했고, 무선심박계를 생산하는 두성기술은 현지 생산제품 450만달러 판매계약 체결에 성공했다.

이밖에도 화이트스파의 소프트옥조, 원테크놀로지의 탈모치료기, 에어포인트의 하이패스단말기 등 전시를 통해 중국기업과 판매유통을 위한 MOU 3건이 체결돼 연간 1000만달러의 현지 유통판매가 기대되고 있다.

대덕특구본부 관계자는 “2010년 15개 특구 소재 벤처기업이 선전 엑스포에 참여해 만족스러운 성과를 거두었다”며 “앞으로도 전략적이고 적극적인 마케팅 지원을 통해 대덕특구 생산제품의 해외시장 진출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11/23>